개발협력분야 경쟁력 강화 탄력

전북도국제교류센터, 개발협력 공모사업 총 3건 선정 국비 5억원 확보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 이하 센터)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개발협력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며, 전북도 개발협력사업 추진 활성화 기반을 닦고 있다.

센터는 올해 들어 개도국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개발협력 분야 학술활동 개최, 인재양성 등 KOICA가 주관한 공모사업 총 3건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2021년도 KOICA-KAIDEC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지원 사업', '2021년 하반기 ODA 사업 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 '2022년 KOI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 제안사업'이다.

'KOICA-KAIDEC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지원사업'은 KOICA·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공동 주관 공모사업으로, 센터는 대학생이 주최하는 국제개발협력포럼을 제안해 오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은 공모 선정기관이 KOICA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 국내 청년인재를 채용, 채용된 인재에게 국제개발협력 사업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센터는 2021년 하반기까지 연속 4번째 선정돼 총 4명의 전북도 인재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2022년 KOI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센터가 몽골 고비알타이(Govi-Altai)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도의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는 총 3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전북도의 개발협력 사업 수주 실적을 축적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수행 주체로서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영호 센터장은 "올해 KOICA 주관 공모사업 연속 선정은 우리 센터가 전북도의 개발협력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협력 분야 공모사업에 부단히 지원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 수주 및 추진경험을 기반으로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추가 실적을 지속적으로 쌓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귀리' 생산 농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전북도, 7월 1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전북도는 '귀리'생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7월 1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귀리'로 확정 고시함에 따라, 도는 시·군 전달 회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청 홍보 활동과 신청·접수를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대상품목 생산 농업인들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등(농업법인 포함)은 지급대상 품목인 귀리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0년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귀리 생산농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직불금 지급신청서, 2020년도에 해당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의 발효일(2015.1.1.)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오는 7월 16일까지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7~8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에 지원금 규모 및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10~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자격요건이 되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신속한 직불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서울국제관광박람회'서 매력적인 전북 관광지 알린다

전북도가 24일부터 27일까지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STTF 2021)'에 참가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최신 관광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이 참여해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

도는 최근 백신접종으로 국내·외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름휴가를 앞둔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14개 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꾸려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필리핀과 일본 바이어들과 여행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전북 관광홍보영상과 투어패스 홍보영상 등을 송출해 매력적인 전북의 대표관광지와 숨은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자개 손거울, 명함집, 수향낭 등의 민 공예품과 도내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류 등 22종을 전시 판매하는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촉행사를 함께 진행해 전북만의 특색있는 기념품으로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 위상 빛낸 5월 '이달의 으뜸 도정상'

도, 최우수부서 혁신성장정책과·우수부서 자치행정과·관광총괄과·도로교통과 선정

전북도가 24일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빛낸 4개 부서를 선정하고, 5월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

전북도가 24일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빛낸 4개 부서를 선정하고, 5월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

최우수부서는 혁신성장정책과가 선정됐으며, 우수부서에는 자치행정과, 관광총괄과, 도로교통과가 선정됐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혁신성장정책과는 4개 분야에 국비 총 232억원을 확보하며,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혁신성장정책과는 2022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160억 원),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40억 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11억 원)의 공모 선정과 2020년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과기부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며 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 산업화와 농생명 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 촉진 등 2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29억 원 규모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자치행정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총 5대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점이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매년 꾸준한 성적향상과 평가실적 극대화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 여건(지방재정, 각종 인프라) 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성과를 달성했다.

또 다른 우수부서인 '관광총괄과'는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138억 원 중 6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관광거점도시' 발판을 마련하는 등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로교통과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동부 내륙권 도로의 국도승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도 정책기획관은 "도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함으로써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도정 성과를 지속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순회교육 추진

전북도가 여름철 계곡과 하천 지역의 안전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으로 올 한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

도는 순창군 물놀이지역 현장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34명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대비한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 교육은 소방서, 수상 안전 전문강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인명구조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 교육도 함께 시·군별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력해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서,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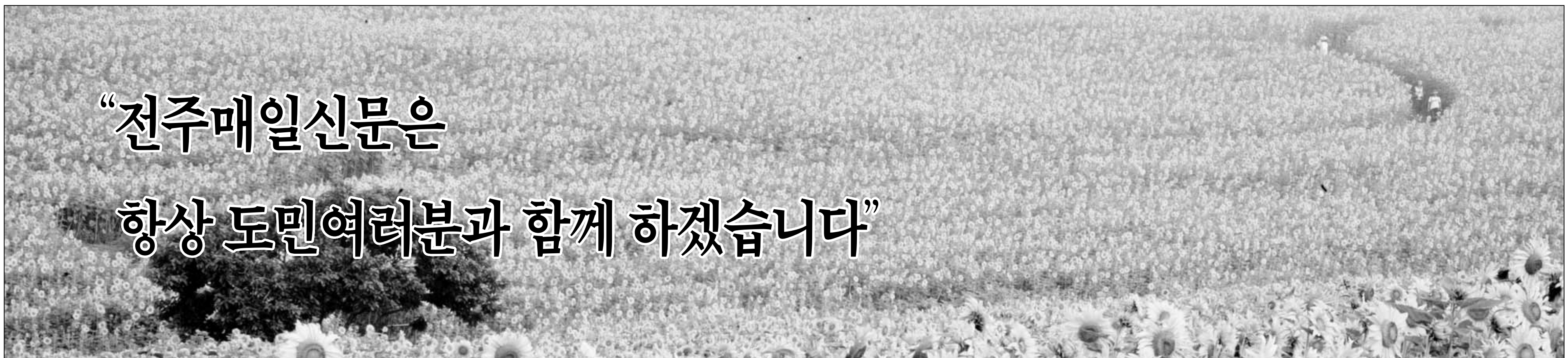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음주 후 수영금지, 구명조끼 착용, 마스크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 및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지역 기업 사업 참여·건설자재 사용 확대 최선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4일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현장에서 공구별 사업장의 시공사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감리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자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지역의 건설장비와 건설자재 사용, 하도급 발주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건설사업에 지역 주민 고용과 지역의 건설장비·자재 사용을 늘리는 등 시공사와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 그 결과, 지역 근로자 채용률이 작년 대비 4%가 증가했고, 지역 건설자재 사용률 역시 4.2% 상승했다.

/유호상 기자